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 (2)

한국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년 상담통계에 나타난 한국가정의 변천사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
가족의식의 변화와 남성의 변화
한국가족, 다양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과 비전
복지국가의 가족정책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법의 역할 및 과제

가족의 과거, 현재, 미래

정 현 숙
상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가정은 사회구성원인 보통사람들의 일상에서의 다양한 삶이 형성, 발전되는 곳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 삶의 경험, 집단 삶이 반영되는 역사적, 사회적 구성체이다. 건강한 가족의 특성은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과 사회 상위체계의 가치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가족을 연구할 때 사회역사적인 맥락에서 가족현상을 어떻게 분석하고 특히 어떤 내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아왔다.

상담소에서는 60년 동안 다양한 사업을 해왔는데, 나름대로 분석 해보면 과거에는 주로 구조적인 문제와 도구적인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에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 왔다. 현재는 부부관계의 내용도 좀 더 동반자적인 부부관계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법적인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가족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하고 있는 가족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 다양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가족이 과연 같은 것인가 하는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대단히 아름다운 그림들이고, 이 같은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이미지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 본소에서는 지난 6월 22일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는 두 번째 심포지엄 '가족의 현실과 미래 – 다시 "가족"을 이야기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순서대로 요약하여 게재한다.

갖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가족은 어떤 구조여야 하는가 그래서 다양한 가족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가족구성원이 누구인가' 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혼란이 있고, 최근에는 '애완동물은 과연 가족인가' 하는 이야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가족이란 공공재로써 뿐만 아니라 사적인 지표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가족을 본다면 과연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급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어느 시점의 가족을 주제로 논의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다고 본다. 사실 가족연구는,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했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이들이 많은 주제이다. 왜냐하면 가족은 친밀감이 큰 주제이지만 정서적 주제이기도 하고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심지어는 정치적인, 어떤 신념까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적인 가족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가족에 대한 사적공간이라는 이미지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간과 공간에 따른, 다양해지는 가족의 실체를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는, 이런 점들 때문에 가족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공통된 이야기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변화의 실체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은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변화를 이야기 할 때는 인구학적인 변화에서 시작 하는데, 사실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이 다르고, 상담소 통계에서도 보았듯이 성별, 연령, 결혼기간,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농경사회에 태어난 아버지 세대와 산업화사회에 태어난 우리 세대, 정보화사회를 살아가는 자녀들 간의 간격 등을 보면 같은 가족이지만, 사실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또 솔직히 가족을 연구하고 있지만 가족 내의 다이내믹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런 연구들이 얼마나 객관적인 결과로써 타당성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가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는 크게 세 가지는 문제가 된다고 보인다.

하나는 변화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불일치, 또 하나는 변화에 접근하는 인식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변화의 정도를 과장하는 문제 이 세 가지이다.

그리고 가족변화의 특징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구조적 변화이다. 다양한 인구혁명, 가족의 정의가 유연해지고 다양해지는 것,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후에 1, 2차가 한꺼번에 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서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즉 모든 변화가 한 시점에서 공존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그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이다. 실제 지금 인구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인구증가율은 떨어지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30대, 40대, 50대가 가장 많은 종형의 구조를 보이고 있고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전 지구적인 혁명, 가족전쟁, 생애과정의 혁명, 성적인 혁명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혁명이란 짧은 기간 동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 가운데 먼저 가족에 대한 인식을 보면서 변화에 대한 공적인 논의가 너무나 양극화하거나 정서적인 논쟁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서 '이혼이 자녀에게 부정적인가 혹은 긍정적인가?' 이런 식의 양극화가 아니라, 사실은 이혼이 글로벌한 과정에서 어떤 혁명이라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더 질문해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일 때 이혼이 자녀들에게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가' 하는 식으로 논의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가족에 속해있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우리와 같이 압축적 성장을 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조금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또 가족의 변화에 대한 과장적 측면도 있다. 언론

에서 언급되는 통계를 보면 혼인기간 20년 이상 된 사람들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 20년 이상 결혼한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기 때문에 이혼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들이 실제로 통계의 오류라 할 수 있으며 이혼은 사실 전 연령층에서 고루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가정이 다른 조직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대관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달적인 과정이라는 측면이 있어서 어느 시점에 끊어 읽느냐에 따라 가족의 양상과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혼을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어느 시점에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다른 상호작용 특성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은 사회제도 이상이다. 가족은 제도화된 영역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결정화되지 않은 영역도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통계청 데이터 가운데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족관계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식의 통계를 가지고 가족을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전 연령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사랑이라는 측면도 있다. 현재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책을 보면 사랑은 없어도 되고 일단 결혼만 하면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식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이다. 부부 갈등영역에서 1위는 성격이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 그러므로 결혼율이 감소하느냐 동거율이 증가하느냐 보다 사람들이 도대체 결혼을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와 이런 결혼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1인 가구를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가족은 관계라고 보기 때문에 1인 가구는 그냥 가구라고 생각한다. 가족은 특별한 종류의 가구나 집단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는 가족적인 어떤 패키지를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경제적인 것, informal group, 지속성, 친밀성을 추구하는 정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결혼은 다른 제도만큼이나 확실하게 이어지지만 그 모양은 다양해질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가족 구조도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 가정(양육) 병행이나 고용경제 불안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경우 만혼과 비혼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결혼의 장애물에 대해 우리는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고, 일본 사람들은 행동의 자유제약을 이야기 한다. 이러한 통계만 보면 우리에게 결혼의 전제조건은 경제이다. 그러므로 이 통계만 보고 정의를 내리면 우리에게 '결혼은 경제적 조건이 마련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애정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무언가의 목적을 위해서 결합하는 형태' 라는 생각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고령화, 세계화, 혁명적 변화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인 과제로서 우리 재량으로 변경하기 어려운 독립변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가족의 역할,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가족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가족이 아닌 개별가족,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좀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가족의 상호작용을 더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하기 위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법률적인 지원은 물론 이것에 관한 데이터를 만들어 우리 사회에 제공해주는 역할도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발표를 마친다. 왜냐하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런 역할을 상담소에서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